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성리학의 직업윤리 분석

박시연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Analysis of Neo-Confucian Vocation Ethics Appeared in Hwaseong-Seongyeok-Uigwe

Si-Yeon Park

Dept. of Vocation,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요약 본 연구는 18세기 건설된 화성의 공사과정을 기록한 조선의 공식문서이며, 유네스코 기록유산인 화성성역의궤를 분석하여 성리학적 직업윤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당시의 직업윤리가 대한민국 직업윤리의 근간임을 밝히려고 하였다. 먼저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예기, 성리대전, 성학십도의 성리학 직업윤리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토목과 건축 기술직 관련 기록을 성리학의 핵심 직업윤리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화성성역의궤의 성리학적 직업윤리는 왕의 은혜로 나타난 인(仁),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나타난 의(義), 상호간의 존중으로 나타난 예(禮), 철저한 연구·증빙·기록으로 나타난 지(智), 성실과 신뢰, 장인정신으로 나타난 신(信)으로 요약된다. 특히 의(義), 지(智), 신(信)이 강조되었는데, 국가적 사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에서 강조하는 성리학적 직업윤리가 잘 드러난 결과이다. 당시의 성리학적 직업윤리는 대한민국 직업윤리의 뿌리임을 확인하였다. 시대의 변천에 따른 상하질서에서 수평질서로 직업윤리를 재정립한다면, 앞으로도 훌륭한 직업윤리 이론체계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적인 직업윤리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대의 직업윤리에 대한 제고를 촉구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of an official document of Joseon that recorded the construction process of Hwaseong, which was built in the 18th century, and analyzes the UNESCO documentary heritage of Hwaseong-Seongyeok-Uigwe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e of Neo-Confucian vocation ethics and to prove that vocation ethics at the time formed the basis of what Korea's vocation ethics tried to clarify. First of all, the Neo-Confucian vocation ethics of Noneo, Daehak, Jungyong, Maengja, Yegi, Seongridaejeon, and Seonghaksipdo were summarized. Also analyzed are records related to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technicians appearing in Hwaseong-Seongyeok-Uigwe with In·Ui·Ye·Ji·Sin*, the core vocational ethics of Neo-Confucianism, and their results. The Neo-Confucian vocation ethics of Hwaseong-Seongyeok-Uigwe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love) shown by the king's grace; Ui* (justice) shown by transparent and fair administration; Ye* (propriety) shown by mutual respect; Ji* (wisdom) represented by thorough research, evidence, and records; and Sin* (faith) expressed as sincerity, trust, and craftsmanship. In particular, Ui* (justice), Ji* (wisdom), and Sin* (faith) were emphasized, and since the government officially recorded the national business, it was the result of the Neo-Confucian vocation ethics emphasized in Joseon. It was confirmed that the Neo-Confucian vocation ethics of the time were the roots of the vocation ethics of Korea. If vocation ethics is re-established from a top-down order to a horizontal order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t will continue to be a great vocation ethics theory system. This study tries to properly recognize the value of traditional Korean vocation ethics and tries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modern vocation ethics.

* Pronunciation of the original text

Keywords : Hwaseong-Seongyeok-Uigwe, 18th Century, Construction, Technical Jobs, Neo-Confucianism, Neo-Confucian Vocation Ethics, Korea's Vocation Ethics, In · Ui · Ye · Ji · Sin*

*Corresponding Author : Si-Yeon Park(Dept. of Vocation,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email: lsiyeon@daum.net

Received March 2, 2023

Accepted April 7, 2023

Revised April 6, 2023

Published April 30, 2023

1. 서론

조선왕조(1392-1910)는 건국에서부터 성리학적인 이상사회를 지향하였으며, 지배층으로부터 향촌사회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높은 성리학적 의식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조선왕조는 건국부터 인재를 발굴하고, 배치하며, 평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기준은 고려 말에 들어온 성리학이었다. 조선 왕조 중기에는 향촌사회의 향약을 통하여 백성들에게도 성리학의 가치가 일상화되었다. 왕과 관료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바탕으로 하는 성리학적 윤리는 삶의 행위규범이었다.

조선왕조는 기록의 나라였다. 조선왕조의 철저한 기록정신은 성리학에 기반을 두어 수준 높은 교육, 실천적인 도덕성, 투명한 행정의 나라였음을 반증한다. 2023년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16개 기록유산 중 조선왕조의 기록유산은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승정원일기(2001)>, <조선왕조의궤(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난중일기(2013)>, <한국의 유교책판(2015)>,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2017)>,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 등 10개 기록유산이 있으며, 아직도 많은 기록유산이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유네스코 기록유산 가운데 2007년에 등재된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조의 왕실의례에 관한 기록물이며 3,895권이 넘는 책으로 시대와 주제별로 왕실의 중요한 의식(儀式)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여 보여준다[1].

이 가운데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는 1793년(정조17) 12월 축성(築城) 예정지 사전답사부터 1796년(정조20) 10월 준공기념잔치를 베풀 때까지의 주요 공사 일정과 인력, 상벌, 군사훈련 등의 기록이며, 1801년(순조 원년) 9월에 10권 9책으로 인쇄되었다[2]. 세계적으로 18세기에 건설된 유명한 도시로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와 미국의 워싱턴DC도 국가사업으로 건설되었지만, 두 도시는 공사보고서를 남기지 않았으며, <화성성역의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사보고서를 남긴 책자라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화성성역의궤>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며, 사회의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그 당시의 토목과 건축의 전체적인 모습, 건설에 참여한 토목과 건축직 직업의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건설현장의 직종, 직무, 모집, 관리, 임금, 근무일수, 상벌, 복지,

직업윤리 등이 제시되었다.

<화성성역의궤>는 조선왕조는 효행(仁)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였음을 알려 준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이장하고, 화성 신도시를 만들고, 어머니 혜경궁홍씨의 회갑연을 베푸는 등, 스스로 백성들에게 성리학 최고의 윤리가치인 효(孝)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으며, 화성은 성리학적 이상이 실현된 도시였다.

그러므로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기록을 통하여, 성리학적 윤리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등의 직업윤리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는 현대에서도 직업윤리의 최고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토목과 건축에 참여한 공장(工匠)들의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직업윤리를 분석하고, 현대의 직업윤리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1세기의 화두가 윤리임을 감안한다면, 본 논문의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윤리의 핵심적인 정신이 성리학에 기반하여 60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음을 밝혀냄으로써 윤리에 대한 성리학적 접근을 촉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성리학과 직업윤리

조선왕조의 직업윤리는 조선왕조의 윤리적 가치인 성리학에서 비롯되며, 송나라의 성리학과 선진(先秦)시대의 유학(儒學) 역사와 경전들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북송의 주렴계(周濂溪), 소강절(邵康節), 장횡거(張橫渠), 이정(二程)을 집대성하여 리학(理學) 일파를 완성한 도학자가 주자(朱子, 1130-1200)이다[3].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의 주자에 의해 완성된 학문으로, 선진(先秦)의 유학인 공자의 논어, 증자의 대학, 자사의 중용, 맹자에 바탕을 두었고, 한나라 이후 중국의 도가사상과 불교사상의 영향으로 송나라에서 발전한 유학을 집대성하여 신유학(新儒學)을 만들었다. 특히 주자는 유학과 성리학의 경전 주석을 집대성하고, 스스로 주석을 달고, 사서의 체계를 세웠다.

조선왕조의 성리학은 고려말 안향(安珦, 1243- 1306), 백이정(白頤正, 1247-1323), 우탁(禹倬, 1262 -1342), 이세현(李齊賢, 1287-1367) 등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이색(李穡, 1328-1396), 정몽주(鄭夢周, 1337-1392)와 정도전(鄭道傳, 1342-1398) 등에 의하여 발전되었고, 조선 건국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은 성리학의 이념을 바탕

으로 한 문치국가(文治國家)였다.

조선 중기인 명종 때에는 성리대전이 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리학의 이해가 깊어졌다. 이황(李滉, 1501-1570)과 그의 제자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성(性)과 정(情)의 수준 높은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이 전개되었으며, 이후 조선의 성리학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성리학 경전들은 윤리적인 모든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직업윤리 가치를 잘 드러나게 하는 경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자의 논어(論語)에는 직업윤리로서의 인(仁 Love)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용야편(雍也篇)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인자(仁者)는 어려운 일을 먼저하고 얻는 것을 뒤에 하니, 이렇게 하면 인(仁)하다고 할 수 있다(仁者先難而後獲 可謂仁矣)”라고 하였다[4].

둘째, 증자의 대학(大學)에는 직업윤리로서의 격물(格物 Analysis), 치지(致知 Best-Knowledge), 성의(誠意 Sincerity), 정심(正心 Right-Mind), 수신(修身 Best-Practice) 등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생각)을 성실히 하고,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지식을 지극히 하고, 지식을 지극히 함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欲修己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라고 하였다[5].

셋째, 자사(子思)의 증용(中庸)에는 직업윤리로서의 성(誠 Sincerity)에 대하여,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道)이고, 성실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道)이다(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라고 하였다[5].

넷째, 맹자(孟子)에는 직업윤리로서 인의예지(仁義禮智)에 대하여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인(仁)의 단서요,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의(義)의 단서요, 사양지심(辭讓之心)은 예(禮)의 단서요,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지(智)의 단서이다(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라고 하였다[6](Table 1).

Table 1. Mencius's clues of four natures

	Clues of four natures	Ethics
In*	Pity	Love
Uj*	Disgrace & Hate	Justice
Ye*	Modesty	Propriety
Ji*	Distinction	Wisdom

* a pronunciation of the original text

다섯째, 예기(禮記)의 예운편(禮運篇)에는 칠정(七情)에 대하여 “사람의 심정인 희(喜 Pleasure), 노(怒 Anger), 애(哀 Sadness), 구(懼 Fear), 애(愛 Sexual Desire), 오(惡 Hate), 욕(欲 Desire)을 칠정(七情)이라 하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능력이다(何謂人情 喜怒哀懼愛惡欲 七者 弗學而能)”라고 하였다[6]. 또, “대신(大臣)은 도리(道理 Duty)를 다하고, 소신(小臣)은 청렴(清廉 Integrity)하다(大臣法 小臣廉)”라고 하였다[7].

여섯째, 성리대전(性理大全)은 성리학의 총서(叢書)인데, 성리(性理) 편에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에 대하여 주자의 문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인의예지(仁義禮智)는 본성의 4덕(德)인데, 또 신(信)을 덧붙여서 ‘오성(五性)’이라고 합니까? 주자가 대답하였다. 신(信)은 이 네 가지를 참되게(誠實) 하는 것이다(仁義禮智 性之四德 又添箇信字 謂之五性 如何? 信是誠實此四者)[8].”

일곱째,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중 6도(圖)인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는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의 결과물이며 “성(性)과 정(情)을 통섭하는 것은 마음(心)이며, 마음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성(性)이니 마음의 본체(體)요, 마음이 느끼어 통하면 정(情)이니 마음의 작용(用)이다(心統性情者, 其心寂然不動爲性, 心之體也, 感而遂通爲情, 心之用也).”, “성실한 마음(誠實之心)은 신(信)의 단서이다(誠實之心 信之端).”, “이미 발(發)한 칠정(氣)은 마음의 작용으로, 이(理)가 그 기(氣)에 탄다(氣發理 理乘之).”라고 하였다[9].

성리학은 사람의 타고난 선한 본성인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이(理)를 바탕으로, 기질지성(氣質之性)인 칠정(七情)의 기(氣)의 조절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윤리적으로 수양하는 학문이다. 성리학적 직업윤리도 경전의 내용과 같이, 윤리적으로 마음을 잘 절제하여,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2.2 성리학의 핵심적 직업윤리

논어(論語), 대학(大學), 증용(中庸), 맹자(孟子), 예기(禮記), 성리대전(性理大全), 성학십도(聖學十圖) 등에서 성리학의 핵심적 윤리를 찾아보면 인(仁 Love), 의(義 Justice), 예(禮 Propriety), 지(智 Wisdom), 신(信 Faith), 성(誠 Sincerity), 격물(格物 Analysis), 치지(致知 Perfect-Knowledge), 성의(誠意 Sincerity), 정심(正心 Right-Mind), 도리(法 Duty), 청렴(清廉 Integrity) 등이며, 직업윤리도 마찬가지로이다(Table 2).

Table 2. Vocation core-ethics of Neo-Confucianism

Neo-Confucianism	Vocation core-ethics
In*	Love
Ui*	Justice
Ye*	Propriety
Ji*	Wisdom
Sin*	Faith
Seongsil*	Sincerity
Kyeokmul*	Analysis
Chiji*	Perfect-Knowledge
Jeongsim*	Right-Mind
Dori*	Duty
Cheongryeom*	Integrity

* a pronunciation of the original text

2.3 선행연구

〈화성성역의궤〉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유형은 〈화성성역의궤〉의 역사적 의미[2,10-13]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조의 효행으로 시작된 화성 건설 당시의 정치 상황과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국가의 재정립, 대동법 · 화폐경제 · 상공업의 발달로 변화하는 경제 질서에 맞는 새로운 시장의 건설, 경기지역의 군사적 방어시설 재구축, 당시의 세계적인 도시건설과 비교, 건설과정의 기록정신과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자부심, 〈화성성역의궤〉 기록을 바탕으로 화성의 복원 등의 내용을 높게 평가하며, 역사적인 의의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화성 건설의 토목과 건축사료적 의미[10-13]를 분석한 연구이다. 화성 건설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는 건설과정의 행정 문서와 일지, 건축 및 토목의 자재 확충, 공정과 책임제도, 기술자와 막일꾼의 모집, 임금과 상벌, 22개 직종과 근무일수(Table 3)[10], 건설장비, 예산의 확보와 공사비용의 정산 등 당시의 건설과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으며, 계획도시 건설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는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에 나타난 직업윤리적 의미[12,13]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의 윤리적인 가치들을 현대적인 윤리의 가치로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일부는 지배층의 윤리인 청백리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현대 직업윤리의 가치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화성성역의궤〉를 분석하였을 뿐이었다.

Table 3. Origin of engineer & Working-days[10]

Vocation	Origin of engineer	Total persons	Number of days
stone mason	Seoul, Suwon, Gaeseong, Ganghwa, Gwangju, Gyeonggi-do, Chungcheong-do, Gangwon-do, Hwanghae-do, Jeolla-do, Gyeongsang-do, Pyeongan-do	612	193,232
Capenter	Seoul-Suwon, Gwangju, Gyeonggi-d, Chungcheong-do, Gangwon-do, Hwanghae-do, Gyeongsang-do	335	63,164.5
Plasterer	Seoul, Suwon, Gaeseong, Gyeonggi-do, Chungcheong-do	295	30,108.5
Roof-tiler	Seoul, Suwon, Gwangju, Gyeonggi-do, Hwanghae-do	150	47,659
Blacksmith	Seoul, Suwon	83	16,999.5
Tiler	Seoul	34	1,391
Wagon-engineer	Seoul	10	2,067
Painter	Seoul, Suwon, Gaeseong, Gwangju, Gyeonggi-do	46	2,803
Vanishinger	Seoul, Suwon	34	1,391
Big-chisel engineer	Seoul	30	3,580.5
Small-chisel engineer	Seoul, Suwon, Gwangju	20	2,601
Crane engineer	Seoul, Suwon, Gyeonggi-do	27	2,735.5
Big-saw engineer	Seoul, Suwon, Gwangju	12	873,
Sculpter	Seoul, Suwon, Gyeonggi-do	36	1,903
Grind engineer	Seoul	2	224
Boat engineer	Seoul, Suwon	8	531
Wood shoemaker	Seoul, Suwon	34	2,698
Saddle engineer	Seoul	4	246
Floding-screen engineer	Seoul	1	25
Door-handle engineer	Seoul	1	215
Scaffold engineer	Suwon	2	713
Lime engineer	Hwanghae-do	1	260
Total 22 vocations		Total 1,821 persons	Total 376,342.5 days

선행연구 분석결과, 당시 조선의 성리학적 직업윤리는 화성 건설의 토목과 건축에 참여한 공장(工匠)들의 행위 규범으로 존재하였지만, 성리학적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화성성역의궤>를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화성성역의궤>에서 제시된 직업윤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화성성역의궤>를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으로서 그 당시 국가적 사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국가에서 지향하는 윤리적 관념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경기문화재단이 국역으로 편찬한 <화성성역의궤>이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예기 등의 성리학 경전과 성리대전, 성학십도를 분석하여 조선의 성리학적 직업윤리 핵심적 가치를 이론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화성성역의궤>의 토목과 건축에 참여한 공장(工匠)들의 직업윤리와 관련된 기록인 시일, 전교, 윤음, 전령, 연설, 계사, 반사, 호궤, 상전, 사목, 식례, 공장 등의 기사들을 분석하였으며, 본 논문에는 성리학적 직업윤리의 핵심적 가치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대표할 수 있는 기사들만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방법은 직업윤리의 실천적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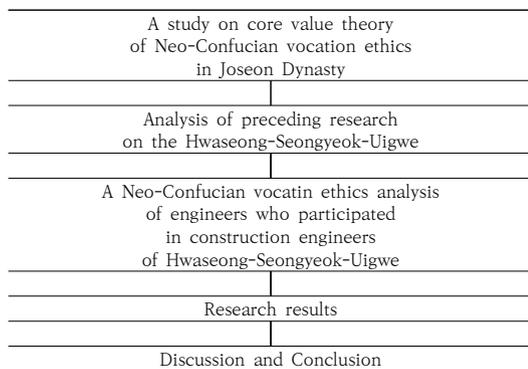


Fig. 1. Analysis framework

본 연구는 조선의 성리학적 직업윤리 이론 연구, 화성 성역의궤 선행연구 분석,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공장(工匠)들의 직업윤리 분석, 연구결과, 논의 및 결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분석틀은 위와 같다(Fig. 1).

4. 연구결과

4.1 화성성역의궤의 성리학적 직업윤리

성리학적 윤리는 사람이 외부의 사물과 사건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인 칠정(七情),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의 기질지성(氣質之性)을 순수한 본성(本性)인 인의예지로 어떻게 조절하며,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참되게 하는 성(誠)과 신(信)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이다.

성리학적 직업윤리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화성성역의궤의 토목과 건축에 참여한 공장(工匠)들의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왕의 물품 하사, 상벌, 회식, 업무기준, 근무일, 임금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를 분석하여 보면 당시 성리학의 핵심적인 직업윤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된 핵심적인 성리학적 직업윤리들을 정리하여, 분류하면 다섯 종류의 성리학 핵심윤리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Table 4), 이를 통하여 화성성역의궤의 직업윤리를 분석하였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Neo-Confucian ethics

In*	Love	Love
Ui*	Justice	Justice / Duty / Integrity
Ye*	Propriety	Propriety
Ji*	Wisdom	Wisdom / Analysis / Perfect-Knowledge
Sin*	Faith	Faith / Sincerity / Right-Mind

* a pronunciation of the original text

4.2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첫째, 사람의 본성인 인(仁)과 그 단서인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감정은 성리학의 시작과 근본이며, 현대적 직업윤리의 가치인 사랑, 아낌, 은혜, 친절, 인간다움 등이다.

<화성성역의궤>의 인(仁)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권1 전교와 윤음에는 “승지를 보내어 음식을 베풀어 석공을 위로하고”[2], 권2 반사에는 “임금이 내려준 계중

단 1500정인데, 원역이나 공장들에게 이르기까지 등급을 매겨 나누어 주고”[2]와 같이 제증단, 척사단, 향유산, 익원산, 광제환 등의 약제와 달력, 부채, 모자, 무명 등 계절용품과 밥, 떡, 옹어, 송어, 전어 등의 음식들을 각 직책의 등급별로 나누어 준 기록이 있다.

권2 호궤에는 “흰떡2개, 북어1미, 술1기”, “밥1기, 국1기, 물고기 자반 2미씩”, “흰떡 2개, 수육6냥종, 국1기, 콩장 2홉, 술1기” 등의 술, 떡, 밥, 국, 수육, 생선자반, 콩장 등의 반찬들을 내려준 기록이 있다.

권1 전교에는 “부역하는 백성들이 농경에 방해가 되는 일을 저지르지 못를 일이다”, “심한 더위로 성역에 관한 일을 잠깐 정지하고, 정지한 품삯은 일한대로 따져서 지급하라”[2], 권1 전령에는 “동짓날이 내일인데 한파가 극심하니, 솜옷을 나누어 주고 위문하라”[2]라는 농경 방해 금지, 계절에 따른 물품하사와 유급휴가의 기록이 있다.

권1 전교 · 윤음, 권2 반사(頒賜) · 호궤(稿饋) 기록의 대부분은 음식을 나누어 주고, 약을 제공하고, 여름과 겨울의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유급휴가를 주고, 계절물품을 나누어 주는 등 화성의 건설에 참여한 기술자와 일꾼들에게 왕이 인(仁)을 실천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화성성역의궤〉에는 성리학적 직업윤리의 가치인 인(仁)은 수직적인 왕의 공장(工匠)과 막일꾼, 부역하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대표적이며, 오늘날 조직의 책임자와 경영자들에게 좋은 직업윤리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둘째, 사람의 본성인 의(義)와 그 단서인 수오지심(羞惡之心)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함의 감정이며, 성리학적 핵심가치인 도리(道理)와 청렴(淸廉)은 의(義)를 표현한 것이다. 현대적 직업윤리의 가치인 도리, 청렴, 책임, 상(賞)과 벌(罰), 승진, 강등, 감봉, 공정성, 공익성, 절약 정신, 합리적 등이며 특히 공·사를 구별하는 것 등이 의(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의(義)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권1, 계사에는 “화성 성역 때 여러 기술자들의 등급을 나누어 마련해서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기록할 때 있던 여러 기술자 91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권1 전교에는 “각별히 수소문해서 찾아서 상을 주어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폐단이 없게 함이 옳다.”[2]라는 수상의 기록이 있다.

권4 감결에는 “인명수를 함부로 늘리어 보고하면 폐장은 무거운 죄를 면하지 못할 것”[2], 권4 사목에는 “게으르게 일한 자는 해당 감동이나 폐장이 직접 단죄하여 불기를 쳐서 다스리되 20대를 넘지 말게 한다”[2] 라는

처벌 기준의 기록이 있다.

권4 사목에는 “서명 문서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2], “그 지급하는 상태를 직접 검사하여 거행하되, 크고 작은 저울 및 되는 모두 새로 검증한 것을 사용한다.”[2]에는 공정한 집행의 기록이 있다.

권4 사목에는 “일을 감독한 감독태장, 석공, 편수의 성명을 성석(城石)의 면에 글로 써서 새김으로서, 후일 견고함 여부를 관찰하여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게 한다.”[2]라는 공정한 평가와 책임 완수를 강조하는 기록이 있다.

권4 품삯 식례에는 “목수, 미장이 1명 마다 매일 돈 4전 2푼(10명 마다 화정 1명 2전 5푼을 둔다.)”[2]라는 22개 직종의 임금의 기준 기록이 있다.

이상의 기록들은 대부분 의(義)를 기록한 것이다. 화성의 건설에 참여한 공장(工匠)들에게 공정한 평가의 기준과 상벌, 업무의 공정한 집행과 근무의 태만을 방지하며, 작업 현장에 실명을 남겨서 책임을 강조하는 등 오늘날의 모든 공직과 직장에서 실천하여야 할 직업윤리의 표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화성성역의궤〉에는 다른 직업윤리에 비해 의(義)를 강조한 기록들이 많은데, 이는 화성의 건설이 공공사업이라는 특성과 상벌과 공사의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였다는 증거로 분석된다.

셋째, 조선의 신분사회는 수평보다는 수직적인 예절이 강조되어, 상명하복의 문화를 낳게 되었다. 예(禮)는 사양지심(辭讓之心) 남에게 양보하고, 겸손한 마음의 감정으로 공경(敬)이 강조되었고, 특히 현대적 직업윤리의 가치로는 존경, 감사, 배려, 협동, 공존, 공생, 질서, 상명하복 등이며, 조직의 질서와 공동체의 윤리가 예(禮)에 속한다. 예(禮)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권4, 사목에는 “술에 취하여 싸움질하는 자가 있거든 직접 내도청으로 잡아 보냄으로써 엄하게 처리하는 근거로 삼는다.”[2]라는 공장(工匠)들 사이에 갖추어야 할 예(禮)에 대한 기록이 있다.

〈화성성역의궤〉에는 행사와 제의(祭儀)를 제외하고는 사람들 사이의 예(禮)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목에 기술자들 사이의 배려를 어길 시에는 벌을 주는 기록이 있는데, 이외에는 예(禮)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예(禮)와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성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다.

넷째, 지(智)와 그 단서인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의 마음의 감정으로, 한자 지혜 지(智)자는 중국의 고서에서 알 지(知)자와 같은 자

로 혼용되었다. 격물과 치지는 과학적인 탐구, 분석, 정확한 지식·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지(智)에 포함된다. 현대적 직업윤리로는 탐구심, 과학정신, 정밀함, 학구열, 예측성, 기록정신, 장인정신, 지혜 등을 포함한다. 지(智)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권1 전교에는 “무명의 품목은 각별히 가려서 나누어 주고 뒤에 올 기술자들에게도 일일이 나누어준 후 기록하라”, “경력자로서 대우하고”, “숙련자에게 계속 일을 완성토록 함으로써”, “공장들에게 등급을 나누어 시상할 일을 전교하여”[2], 권4 사목에는 “폐장과 원역도 그 일하는 곳의 크고 작음에 따라 나누어 파견하라”[2]등의 기술숙련과 지식을 존중하는 기록이 있다.

권4 감결에는 “매일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무태도를 평정하는 근거로 삼을 일”[2], 권4 공장에는 “각 작업의 편수는 공사현장까지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만 공사한 일수만 기록한다.”[2]라는 근무 태도와 근무 일자를 철저히 작성하는 기록이 있다.

〈화성성역의궤〉 기록 전체가 성리학적 직업윤리로서 지(智)이며, 장인들의 선출과 배치, 분류, 등급을 매겨 기술자들 가운데 폐장과 편수를 임명하는 것 등은 지(智)의 결과이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어려서부터 성리학을 공부하고 실천하며, 자연스럽게 직업윤리의 가치인 지(智)를 으뜸으로 여겼을 것이며, 하층민들도 그러한 양반의 관심과 영향력 아래 지(智)의 가치에 익숙했을 것이다. 화성의 건설에는 지(智)의 실천이 생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신(信)은 성실지심(誠實之心)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의 감정이며, 신(信)과 성(誠)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밝혀주는 참된 마음으로, 정심(正心)도 신(信)에 포함된다. 현대적 직업윤리의 가치로는 근면, 성실, 신뢰, 믿음, 신용, 입증, 조절, 균형, 중화 등이 신(信)에 포함된다. 신(信)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권4 사목에는 “폐장과 원역들의 사료포는 식례에 의하여 다달이 선보름 후보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감동이하는 실제 근무에 따라 날짜를 계산하여 마련하고 기술자의 품삯은 닷새마다 지급하며, 막일꾼은 그날그날에 지급한다”[2], “각소에서 받아간 일지는 일일이 책자로 만들어서 증빙과 참고의 근거로 삼는다”[2], “서명 소책자 등과 같은 참고할 만한 문서는 일일이 모아서 분류하여 봉해두었다가 이후에 증빙과 대조할 자료로 삼는다”[2]라는 기준과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임금액과 임금수령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신용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권4 사목에는 “일을 감독한 감동, 폐장, 석공, 편수의

성명을 성석(城石)의 면에 글로 써서 새김으로써 후일 견고함 여부를 관찰하여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게 한다”[2]라는 공사자의 입증과 능력을 평가하는 기술신용의 기록이 있다.

권4 공장에는 22개 직종의 공장들의 근무일과 작업현장을 기록하였는데, 예를 들면 “석수 한시용(782일, 부석소, 장안문, 복성, 남성, 북용성, 북동적대, 북동치, 서성, 창룡문, 화서문, 남서문), 목수 정복룡(730일, 구포 치목소, 팔달문, 복내당, 낙남헌, 노래당, 결룡관, 북동포루, 북서포루, 북포루, 향교)”[2]라는 성실과 현장 입증의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근무태도의 성실함을 존중하며, 기술의 숙련 정도에 따라서 일을 맡기며, 반드시 작업현장과 근무일수를 믿을 수 있도록작성하고, 공장(工匠)들의 기술신용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분석된다. 특히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기록들은 대부분 사용할 물품과 일의 결과, 근무일, 임금 등을 일일이 대조하고 증빙하였다. 이것은 화성의 건설이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에서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직업윤리의 가치로 통용되는 사랑, 아낌, 은혜, 친절, 복지, 책임, 상(賞)과 벌(罰), 승진, 강등, 감봉, 공정성, 공익성, 절약 정신, 배려, 협동, 공존, 탐구심, 과학정신, 학구열, 예측성, 기록정신, 근면, 성실, 청렴 등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적인 직업윤리인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성(誠),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도리(道理), 청렴(淸廉) 등에서 파생된 것이다.

〈화성성역의궤〉를 제작하던 당시의 직업윤리는 현대의 직업윤리에서도 대부분 중요한 가치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논의 및 결론

5.1 논의

본 연구는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기록을 성리학적 직업윤리의 이론을 가지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점들을 제시한다.

첫째, 〈화성성역의궤〉는 왕이 다스리던 조선시대의 기록이며, 왕을 중심으로 계층적인 신분사회의 모습이 드러난다. 신분사회의 윤리로 실천되었던 성리학의 가치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은 현대사회의 직업윤리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 가치들은 일상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는 신분사회

에서의 윤리가 현대적인 민주주의의 가치로 재조정하는 시각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성리학은 인간의 마음(心)을 다스리는 수행의 방법으로, 성리학 경전의 개념 학습을 통하여 외재하는 대상을 감각하고, 의식할 때 발생하는 욕심을 다스리는 내성적(內省的)인 학문이며, 조선의 윤리적인 행동규범이었다. 조선시대에 강조한 맹자의 진심편의 “마음을 수양함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養心 莫善於寡欲).”[6]라는 기록은 성리학의 학습 태도였을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 성리학적 개념들은 지금도 국민들 의식 속에서 내재적으로 작동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리학을 전근대적인 관념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가치들을 재조명하고, 현대의 철학과 심리학 등의 학문과 융합하여, 전통적인 가치를 새로운 윤리적 행동규범으로 재정립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셋째, 우리의 전통적인 직업윤리 가치들은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의 서양철학 번역어들과 혼용되면서 고유한 모습을 잃게 되었다. 19세기 일본은 서양철학 용어를 성리학 경전의 용어로 번역하였고, 성리학에 없는 용어들은 한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조어를 만들었다[14]. 우리의 전통적인 성리학 용어와 서양철학 번역어는 우리의 윤리적 행동규범과 개념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지금도 서양의 철학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일제강점기의 번역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현대의 직업윤리를 서양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르치며, 윤리개념의 근거를 플라톤과 칸트 등 서양철학에서만 찾는다.

본 연구결과, 성리학적 직업윤리의 가치가 현대에 이어져 왔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윤리의 근원을 성리학의 경전에서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고유한 직업윤리가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공직과 영리사업을 막론하고 직업윤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령으로 규범화하고,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2,300여 년 전 맹자의 한탄과 같이 “왜 이익을 이야기하느냐? 인의(仁義)가 있을 뿐이다(何必曰理, 亦有仁義而已矣).”[6]라는 지적과 같이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직업윤리를 외면하는 만연된 사회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직업윤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직업윤리로 무장된 인력양성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인공지능은 과학의 발전과 유용한 전자제품의 개발로 인간의 삶에 풍요를 제공하고 있다. 요즘 인공지

능(AI)기반의 챗GPT가 유행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윤리를 둘러싼 논쟁과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만약 어느 한 종교와 철학으로 적용된 인공지능이 세계의 가치를 지배한다면, 다른 종교와 철학적인 기반의 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위협에 빠질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성리학적 직업윤리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전통가치를 명료화하고, 인공지능의 윤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본 연구는 국가사업을 수행한 기록인 <화성성역의궤>의 일부 기록에 대하여 성리학의 직업윤리를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화성성역의궤>의 일부 기록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갖는다.

조선시대와 대한민국은 신분사회와 민주사회, 상하질서와 수평질서 등의 정체(政體)와 국제(國體)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조선왕조실록, 연려실기술, 목민심서 등의 역사문헌 연구를 통하여 성리학적 직업윤리의 가치를 더 넓고 깊게 분석하여 명료화 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직업윤리 가치 연구 결과들과 비교분석할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성리학적 직업윤리 가치와 사라진 가치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성리학적 직업윤리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한다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직업윤리 체계를 발달시킬 수 있다.

5.2 결론

본 논문은 조선의 성리학적 직업윤리의 핵심가치를 정리하고, <화성성역의궤>를 통하여 성리학적 직업윤리의 실천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직업윤리를 밝혀보려고 하였다.

첫째, 인(仁)의 직업윤리는 조선이 왕조시대이고,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 화성(華城)건설의 토목과 건축에 참여한 공장(工匠)들에게 하사품과 회식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정조의 화성 건설은 인(仁)의 실천인 효(孝)로 시작하여서, 공장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인(仁)의 모범을 보인 기록이 대부분이며, 공장들 사이에 행동규범으로 직업윤리 가치인 인(仁)의 기록은 부족하다. 성리학적 직업윤리 인(仁)은 신분사회가 없어진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공자는 인(仁)을 강조하였지만, 맹자는 인(仁)과 더불어 의(義)를 강조하였다. 성리학적 신흥시대부들이 앞장서서 조선의 역성혁명에 참여하며 강조한 것이 맹자

의 의(義)였다. 그리고 조선은 고위 관료로부터 하급 관료에 이르기까지 직업윤리로서 의(義)를 강조하였으며, 청렴과 청백리 및 염근리[12]로 대표되는 투명한 행정의 직업윤리로 삼았다. <화성성역의궤> 기록의 대부분은 성리학적 직업윤리 가치인 의(義)를 강조하고 있으며, 화성(華城)건설 당시에 가장 강조한 직업윤리는 의(義)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현대 공직윤리에서 강조되는 청렴은 그 근원을 성리학적 가치인 의(義)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조선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예(禮)로써 실천한 국가이다. 그러나 화성성역의궤에는 각종 행사와 제례는 강조되었지만, 직업윤리의 가치로서 예(禮)에 관한 기록은 상하의 질서를 상과 별로 다스리는 상명하복과 사목에 기술자들 사이의 배려를 어길 시에는 벌을 주는 기록 정도일 뿐이다. 그리고 공장(工匠)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직업윤리는 사목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으며, 신분사회 예절의 결과라고 본다. 이와같이 현대 직업윤리인 양보와 희생정신, 협동, 공존, 상호존중 등의 근원은 조선의 성리학적 가치인 예(禮)에서 찾을 수 있다.

넷째, <화성성역의궤>의 기록 자체는 성리학적 직업윤리인 지(智)의 결과이다. 조선은 많은 기록유산을 남기고, 과학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 역사의 결과물들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세계 최고의 인쇄 활자에서 보듯이, 높은 수준의 지식을 지향하는 성리학적 가치인 지(智)의 결과물이다. 우리나라의 발전에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의 전통이 있었다. 현대의 직업윤리인 과학정신, 기록정신, 교육정신은 성리학적 직업윤리의 가치인 지(智)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다섯째, <화성성역의궤> 기록 대부분은 증빙서류를 대조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근무일수를 꼼꼼히 기록하며, 혹시라도 포상 혜택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근거를 찾아서 포상하는 등 철저한 믿음과 신뢰의 자료이다. 이것은 성리학적 직업윤리인 신(信)의 결과이다. 현대의 직업윤리인 성실, 신뢰, 신용 등은 성리학적 직업윤리의 가치인 신(信)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여섯째, 화성은 성리학적 윤리와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계획되고, 건설되었으며, <화성성역의궤>는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는 기록자료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성리학적 직업윤리로 분석한 결과 수상기록 · 처벌기준 · 서명문서의 검증 · 성석(城石)표기 · 임금기준 등의 의(義), 기술 숙련자 우대 · 작업일지 · 현장기록 · 화성

성역의궤 기록 작성 등의 지(智), 임금 수령일 · 문서증빙 · 능력평가 · 근무현장 · 근무일자 등의 신(信)과 같은 기록이 많았다. 이것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가운데 특히 의(義) · 지(智) · 신(信)이 강조되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화성성역의궤>에서 나타난 당시의 성리학적 직업윤리는 오늘날 직업윤리의 뿌리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현대의 직업윤리에서도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은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직업윤리 가치이다.

References

- [1] Joseon-Wangjo-Uigwe - UNESCO World Heritage Site. <https://heritage.unesco.or.kr>
- [2] Y. W. Han, D. W. Kim, J. W. Lim, O. Y. Jo, Y. S. Yang, Korean translation supplementary edition <Hwaseong-Seongyeok-Uigw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p.㉞, p.㉟, p.㊱, p.8, p.164, p.165, p.167, p.171, p.184, p.220, p.227, p.236, p.251, p.484, p.485, p.510, p.511, p.512, p.514, p.517, 2005.
- [3] You-Lan. Feng, The complete translation of <The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Vol.2, S. G. Park Trans), Kka-Chi-Geul-Bang, (Original work published 1968), p.531, 2021.
- [4] B. H. Sung, The latest version of Noneo Jipju, Hanguk Inmun Gojeon Yeonguso, p.166, 2017.
- [5] B. H. Sung, The latest version of Daehak-Jungyong Jipju, Hanguk Inmoon Gojun Yeonguso, p.27, p.160, 2017.
- [6] B. H. Sung, The latest version of Maengja Jipju, Hanguk Inmun Gojeon Yeonguso, p. 18, p.135, p.584, 2017.
- [7] S. O. Lee, The lastest version of complete translation of Yegi, Vol. 2, Myeongmundang, p.638-639, p.653-654, 2003.
DOI: <https://doi.org/10.978.897270/7424>
- [8] Y. N. Youn, C. G. Lee, J. Y. Kim, W. H. Youn, & G. Y. Choo, The complete translation of Seongri daejon, Vol. 6, Hakgobang, p.490, 2018.
DOI: <https://doi.org/10.978.896071/7664>
- [9] S. P. Jang, H. C. Kim, G. H. Kim, J. M. Nam, & B. O. Jeon, A annotation and explanation of Seonghaksipdo, A book of Korean History Laboratory published by National Culture Study of Korea University, Yemunseowon, p.97-99, 2011.
DOI: <https://doi.org/10.978.897646/2527>
- [10] H. G. Choi, The Hwaseong Construction of King Jeong-jo, Iljisa, p.119-120, 2001.
- [11] D. W. Kim, The Hwaseong in Suwon, the new town of

- Joseon-era, built on Silhak, Dolbegae, p.119-120, 2002.
- [12] Kim, Byung-Sook, The history of Korea vocational development, Sigmappress, p.477-495, p.592-605, 2007. DOI: <https://doi.org/10.978.895832/2344>
- [13] J. K. Youn, *Analysis of late Joseon-era construction and architecture occupations in the Hwaseong-Seongyeok-Uigwe*, Ph.D, Kyeonggi University, p.91-95, 142-145, 2013.
- [14] Masao Maruyama and Shuichi Kato, Translation and Japanese Modernity (S. M. Lim Trans), Yisan,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p.106, 2000.

박 시 연(Si-Yeon Park)

[정회원]



- 2014년 2월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6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 박사 수료

〈관심분야〉

직업학, 사회복지학, 성리학